

지역 소식통

군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634가구 21억8000만원 투입 저소득층 집수리·농어촌 빈집정비 나서

군산상공회의소,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운영기관 선정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2017년 장년인턴 취업지원제(장년고용지원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는 장년층 미취업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보조를 통한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인턴 1인당 3개월간 월 60만원(총 18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총 36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실시기업의 요건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고, 인턴채용 인원 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까지이다.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상공회의소는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시니어 인턴십 일학습 병행제 등 고용 안정과 제작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총력

익산경찰서(총경 김성중)는 C최근 경찰서 2층 소복상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익산 중앙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했다.

지난 회의는 시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및 각 시장 상회회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대구, 여수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 익산시에 있는 각 전통시장들의 화재 취약점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 화재예방 노력에 협력을 다하여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익산경찰서 김성중 서장은 직접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연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각 시장 상인회장은 소화기 비치,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 화재예방시설 점검 및 개선과 상인들 함께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해 화재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성중 서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예방 및 절도 등 각종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시장을 볼 수 있는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2017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홍보 나서

군산시가 중소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은 환경부에서 환경산업 기업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중소 재화용업체 및 환경 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으로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개보수 등 시설자금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등)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환경개선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등이다.

1분기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로, 2017년 1분기 기준 1.72%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 신청은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ire.kr)을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739)으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수선 및 빈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634가구에 21억8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매진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본인소유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우선유지급여사업 ▲본인 소유 주택이나 임차거주에게 지원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심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심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이다.

먼저 우선유지급여사업은 올해 480가구 15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대상가구 현직확인 후 주택 개·보수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미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이내, 중보수 650만원 이내, 대보수 950만원 이내까지 현물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 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의 5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활용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89세대 3억50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 천호, 주방 등 시설보수와 도배·장판 등 간단한 개·보수를 지원하게 되며 2월경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도심지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00만원 이내의 시설비로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에게 5년간 주변시설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셰어하우스 사업과 주거환경 저해나 안전문제를 해소하고자 3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심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물론 재난과 범죄예방, 저소득층 반값 주거장소 제공으로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는 30여동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과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 후 주변시설의 반값 정도로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80동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시 지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나 운반비 등 추가비용을 반영해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거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시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2)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설 연휴 주요 관광지 '복세통'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및 관광객들로 인해 군산지역 주요 관광지가 복세통을 이뤘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수는 총 1만601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증가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연휴 기간 한복 입은 방문객 무료 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민속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고, 설 당일인 28일에는 무료 개방했다.

또한 연날리기, 떡메치기, 페이스페인팅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에게 인절미와 한방차를 제공해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새만남방조제도 연휴 기간 내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27일에는 3835명이 다녀갔으며, 28일에는 7645명으로 가장 많이 방문했고, 29일 6841명, 30일 5981명 등 총 2만430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부분 개방한 고군

산열도로는 연일 몰려드는 차량 및 방문객들로 인해 혼잡을 빚었다.

이에 반해 여객선 도서귀성객은 고군산열도로 개통 및 기상여파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도서지역을 찾은 귀성객은 총 2037명으로 전년도 3841명보다 1804명, 53%가 감소했다.

이는 연휴 첫 날인 27일과 마지막 날인 30일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동안 5대 범포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등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의 명절을 보냈다.

군산경찰청은 연휴 기간 발생한 5대 범포는 총 43건으로 전년도 56건에 비해 23.2%가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또한 13건에 18명의 부상자가 발생, 전년도에 비해 3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1분기 읍면동 현장행정 사업 선정

올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월 중 읍면동 견문보고를 통하여 접수된 144개 사업 80억원에 대하여 예산부서, 사업부서, 읍면동장과 함께 현장행정을 완료하고 1분기 추진사업으로 8개 분야 97건, 46억원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 현장행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97건의 사업은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2월초 설계를 시작으로 5월까지의 모든 사업의 준공을 추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일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읍면동 현장행정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읍면동 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시급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며, 신속한 감영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근접행사가 2월6일~17일(10일간)까지 읍면동별로 개최될 예정으로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과 2분기 읍면동 현장행정 사업에 대하여 3월까지 현장행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읍면동장 견문보고에 대한 현장 행정을 분기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급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14일까지 모집

익산시는 청년 SNS 마케터 등 20개 사업 74명을 모집하는 '2017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을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뉴딜일자리란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비 등 단순 업무보다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한다.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 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일자리이다.

올해는 8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참여자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원과 기간 등을 확대했다.

시급은 난이도에 따라 최저시급(6,470원)보다 높은 6,800원/7,0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사업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실업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익산시에서는 뉴딜일자리 확대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회공헌 서비스 제공과 젊은 청년들에게 직무 역량 향상을 통한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공공자전거 100대 확충

군산시가 관광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공자전거 확충에 나선다.

시는 고군산열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운영 거점 장소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시도 및 시내거점 3개소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전에 설치되는 공공자전거는 총 100대로서 지역별로는 신시도 50대, 군산시청 15대, 시외버스터미널 20대, 구 시청 앞 15대 등이다.

그동안 시는 은파호수공원 45대, 백

년광장 15대, 금강습지공원 40대 등 3개소에 총 100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해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자전거 확충에 따라 관광객 편의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입찰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지역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은 총 1만8628대로, 수입금액은 1288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보 장서 확보

군산시립도서관이 문화공간의 역할과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도서구입비 2억9000만원을 확보해 장서를 확충한다.

특히 월별 도서구입의 최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민 희망도서 반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도서구입으로 다양한 분야의 장서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군산시 본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에는 48만여권의 장서를 확보해 시민 1인당 1.7권의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식·정보·교육·문화의 중심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다양하게 비치해 도서관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3일 개최 '개혁의 시대를 연 원불교 여성 10대 제자'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종 총장)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여성 10대 제자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2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

개혁의 시대를 연 원불교 여성 10대 제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남성 9인 제자들과 함께 원불교의 역사를 만든 여성 10대 제자들에 대한 생애사적 조명을 통해 향후 원불교 100년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2세기 원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소태산 대종사의 여성 10대 제자들은 개혁세상의 새로운 주체로서 남성 9인 제자들과 함께 원불교 교단조직을 이끌어온 인물들로 이타원 박사(하), 이타원 장적조 삼타원 최도화는 초기 교단에서

3대 여걸'로 불렸으며, 사타원 이원화는 소태산 대종사의 최초 여성 제자이자 교단의 첫 여성 전무 출신이다.

또한, 오타원 이청준은 익산 총부 건설에 동참했고, 육타원 이동진화 팔타원 함정신행, 구타원 이공주 등 3인은 재산과 학식을 겸비해 소태산의 새 회상 창업에 큰 공헌을 세웠으며, 칠타원 정세월과 십타원 양하운 대사교는 각각 불림연구회 초대회장인 추산 서중안과 소태산 대종사의 부인인 정토화원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원불교사상연구원 박맹수(윤철) 부원장은 "원불교는 초기부터 여성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남녀동권을 실천해 왔다"며, "원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지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10대 제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야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학술대회를 계기로 원불교에 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열린 '구인선진 출가위법훈서훈기념 학술대회' 이후 여성 10대 제자 주제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원광대와 원불교 산하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됐으며, 특히 미국 선학대학원대학교 하상의 교수가 1920년 소태산 대종사의 남녀관리동일 선언 이후 원불교 남녀동권의 이념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기초발표에 나선다.

이외 10대 여성 제자 각각에 대한 연구발표와 함께 (사)가배울김정희 대표 주관으로 원불교 2세기와 여성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 시간도 갖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매입 절차 본격화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시장동 194번지 일원 9만 8850㎡(2만9000여평)의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부지매입 위수탁자로 내정하고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는 병원 측과 부지매입 비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위수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부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부지매입 진행상황에 따라 용역사를 선정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라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부지매입이 60% 이상 진척될 경우 기본계획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부동산투기 등을 막기 위해 병원부지 일대를 오는 2019년 10월 1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했으며, 해당 지역은 앞으로 3년간 토지 분할, 승토, 건축행

위 등이 제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들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병원 건립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시비 20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66억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8층 500병상 규모로 건축되면, 개원 목표는 오는 2021년 이다

/군산=문정곤기자